Kindertotenlieder

- □□

정보

구스타프 말러, 《 Kindertotenlieder》

개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 (Gustav Mahler, 1860–1911)
작품명: 《 Kindertotenlieder》(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작곡: 1901–1904년
초연: 1905년 1월 29일, 빈 음악협회 소홀, 프리드리히 바이데만 독창 ·말러 지휘
장르: 독창과 관현악을 위한 연가곡
구성: 프리드리히 뤼케르트 (Friedrich Rückert)의 시 다섯 편
성악: 저음 성악 (초연은 바리톤, 오늘날 메조소프라노 ·알토도 부름)
연주 시간: 약 23–27분, 평균 약 25분

Mahler Foundation:

https://mahlerfoundation.org/mahler/compositions/kindertotenlieder/kindertotenlieder-introduction/

Universal Edition: https://www.universaledition.com/en/Kindertotenlieder/P0116516

《 Kindertotenlieder》는 뤼케르트가 두 자녀의 죽음 뒤 쓴 수백 편의 시 가운데 다섯 편을 골라 하나의
연속된 연가곡으로 만든 작품이다. Nun will die Sonn’ so hell aufgeh’n 에서 개인의 상실과 바깥의 햇빛이 충돌하고, Nun seh’ ich wohl, warum so dunkle Flammen 과 Wenn dein Mütterlein 에서 죽은 아이의 부재가 일상의 몸짓과 회상으로 구체화된다 . Oft denk’ ich, sie sind nur ausgegangen 은 잠시 자기 위안을 시도하며, In diesem Wetter, in diesem Braus 는 폭풍의 행진에서 어머니의 집과 안식의 이미지로 이동한다. 말러는 다섯 곡을 한 단위로 보았고, 판본 표지에는 곡 사이의 중단을 피하라는 지시가 남아 있다.

텍스트와 작곡 배경

뤼케르트의 시군은 1833–1834년 두 자녀를 잃은 경험에서 나왔으며, 사후에 출판되었다는 점은 자료가 일치한다. 시편 수와 최초 출판 연도는 428·423·400편 이상, 1871·1872년 등으로 기록이 갈리므로 여기서는 “수백 편 ”으로만 적는다. Mahler는 그 가운데 다섯 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단어를 반복했다.

작곡 시기는 1901년과 1904년 여름으로 나뉘어 설명된다. 1·3·4번을 1901년, 2·5번을 1904년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MahlerCat는 다른 곡 조합과 Alma Mahler의 회고도 함께 전한다. 작품은 말러의 딸 Maria가 1907년에 사망하기 전에 완성되었다 . 따라서 딸의 죽음이 이 곡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쓰는 것은 시간 순서를 거꾸로 만드는 일이며, 말러가 Guido Adler에게 텍스트 속 아이의 죽음을 상상해 작곡했다고
설명했다는 후대 전승과 구분해야 한다.

출판 정보와 판본

1905년 라이프치히 C. F. Kahnt가 피아노 ·성악판과 총보 ·관현악 파트를 발행했다. 4번 곡의 피아노판이 1905 년 5월 Neue Zeitschrift für Musik 보충물로 먼저 나왔고, 전곡 초판은 같은 해 여름에 등장했다는
MahlerCat의 서지가 있다. Universal Edition의 현행 Studienpartitur와 1979년 Zoltan Roman 편집
전집판은 후대 판본으로, 초판과 동일한 물건이 아니다.

말러 생전에는 중간 ·저음 성악용 원판이 중심이었고 , 1915–1916년 Kahnt가 전곡을 단 3도 올린 고음판을
냈다는 기록이 있다. 원조 음역과 이조판을 구별해야 하며, 특정 성부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소요 시간

IMSLP는 평균 약 25분, Mahler Foundation의 곡별 안내를 합산하면 약 25분, 다른 공연 자료는 23–27분을 제시한다. 지휘 템포와 곡 사이의 연결, 녹음 편집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 23–27분으로 예상할 수 있다.

편성

저음 성악과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 호른 4, 팀파니, 글로켄슈필 , 탐탐, 첼레스타, 하프, 현악기로 편성된다. 트럼펫은 없다. 모든 악기가 다섯 곡에서 동시에 연주되는 것은 아니다. MahlerCat는 잉글리시 호른과 베이스 클라리넷이 3번과 5번 등에, 피콜로 ·콘트라바순 ·호른 3–4가 특히 5번에 배정된다고 설명한다. 초연은 작은 홀과 빈 필하모닉 단원으로
구성한 비교적 작은 관현악으로 열렸지만, 오늘날의 큰 악단이 연주해도 곡별 사용 차이는 그대로 남는다.

다섯 곡의 구성

I. Nun will die Sonn’ so hell aufgeh’n

D단조로 기록되는 첫 곡은 성긴 일정음과 늦게 모이는 화음으로 빈 공간을 만든다. 태양은 모두에게 밝지만, 화자는 아이가 없는 창가에서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낮은 현과 바순, 어두운 목관, 호른의 넓은 음정이 애도의 무게를 만들고, 고음역 첼로와 글로켄슈필이 바깥의 햇빛을 잠시 비춘다. 이 밝음은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곡 전체의 어두운 바탕 위에 놓인 대비다.

II. Nun seh’ ich wohl, warum so dunkle Flammen

C단조의 두 번째 곡에서는 뒤늦은 이해와 회상이 전면에 나온다. 세 음의 앞꾸밈이 Nun seh’ ich 의 말투와 맞물리고, 하프의 음색이 아이의 눈빛과 불빛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Universal Edition이 설명한다. 불안정한 도입, 미해결된 상승 모티프, 침묵과 지연이 질문을 계속 남기며, 첫 곡보다 직접적인 기억이지만
아직 남성합창이나 외부의 응답은 없다.

III. Wenn dein Mütterlein

C단조로 기록되는 세 번째 곡은 어머니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의 자리를 찾는 일상의 동작을 중심에 둔다. 동요나 셈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선율이 아이가 곧 돌아올 것처럼 반복되지만 , 그 반복은 부재를 확인하는
쪽으로 기운다. 첼로와 목관의 낮은 음역, 잉글리시 호른과 베이스 클라리넷의 어두운 결이 목소리의 가까운 독백을 받친다. 이 곡의 선율을 말러 교향곡 제 3번 피날레와 연결하는 설명은 후대 분석의 주장으로 귀속한다.

IV. Oft denk’ ich, sie sind nur ausgegangen

다수의 자료는 E♭장조를 제시하지만 , Universal Edition 영문 머리말과 MahlerCat의 일부 표에는 E장조가 나타난다. 판본 표기의 차이를 밝혀 두고, 여기서는 E♭장조로 분석하는 음악 자료의 관행을 따른다. 밝은 전주 뒤 성악의 짧은 단 3도 도약이 아이들이 잠시 나갔다는 자기 위안을 곧바로 흔든다. 반음계와 갑작스러운 조성 변화, 쉼이 체념과 위로 사이의 망설임을 만들며, 마지막의 높은 곳 이미지는 완결된 구원보다 다음 곡의
폭풍을 앞둔 잠정적인 전환으로 남는다.

V. In diesem Wetter, in diesem Braus

D단조의 폭풍과 행진으로 시작해 D장조의 느린 자장가로 향하는 마지막 곡이다. 피콜로, 베이스 클라리넷, 콘트라바순 , 추가 호른, 팀파니와 탐탐이 거친 전주를 만들고, 성악은 폭풍 속에서 아이를 내보낸 일을 되돌아본다 . 후반에는 어머니의 집처럼 안전한 곳에서 영원히 쉬는 이미지가 나타나며, 넓어진 장조와 Wiegenlied 를 닮은 속도가 곡을 가라앉힌다 . 이 결말을 비극의 완전한 해결이나 특정 신학 교리로
단정하기보다 , 안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종결로 듣는 편이 자료에 맞다.

연속성 지시와 초연

1905년 1월 29일 빈 음악협회 소홀에서 프리드리히 바이데만이 독창하고 말러가 지휘해 다섯 곡을 처음 공개했다. 전날 공개 드레스 리허설과 2월 3일 빈 재공연, 6월 1일 그라츠 공연도 연표에 남아 있다. 초판 표지는 다섯 곡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 ”로 취급해 곡 사이 박수와 중단을 피하라는 지시를 실었다. 반면 Société Gustav Mahler France는 말러가 곡 사이 박수를 요청했다는 전승을 소개하므로 , 모든 공연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녹음과 후대 연주

Mahler Foundation은 1949년 빈 필하모닉과 브루노 발터의 녹음을 역사적 사례로 소개한다. MusicBrainz 에는 1945년 Marian Anderson·Pierre Monteux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녹음이 더 이른 데이터 입력으로 나타나지만 , 데이터베이스 목록만으로 최초 녹음을 확정하지 않는다. 말러 생전의 저음 성악 관행과 후대의 메조소프라노 ·알토, 1916년 고음 이조판은 같은 작품을 서로 다른 음역으로 실현해 온 공연사의 일부다.

□□ □□

- Mahler Foundation, □□ □□
- Mahler Foundation, □□ ·□□ □□
- Universal Edition, *Kindertotenlieder*
- MahlerCat, □□ □□
- MahlerCat, Printed Editions
- IMSLP, *Kindertotenlieder*
- Société Gustav Mahler France, *Kindertotenlieder*
- Classical Net, “Mahler — Kindertotenlieder IV”